

#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JUNE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6

**105**  
201506

2015 베니스비엔날레  
**venice biennale**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 special feature III

#### 이토록 매력적인, 미술들

• 편집부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모든 세계의 미래'에 대해 내놓은 의견들로 떠들썩해진 베니스, 이 도시의 미술관과 유서 깊은 건물들도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매력적인 전시로 관객을 유혹한다. 잔잔한 녹색 운하 위를 검은색 곤돌라가 미끄러져 나가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도시는 과연 각양각색 다이내믹한 현대미술을 어떻게 품었을까.

#### 언제나 그랬듯, 피노 컬렉션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못지않게 늘 화제를 낳는 공간, 세계적인 컬렉터 프랑수와 피노(Francois Pinault)의 두 미술관부터 살펴보자.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는 오는 11월 30일까지 <Martial Raysse>전을 개최한다. 2012년 <Urs Fischer>, 2013년 <Rudolf Stingel>에 이어 현대 미술작가 개인전을 선보이는 것이다. 프랑스 태생의 신사실주의 미술가로 앤디 워홀(Andy Warhol),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등 전후 미국 예술가들과 동시대에 등장해 니스, 파리, 뉴욕 그리고 LA 등지에서 활동해 온 마르살 레스(Martial Raysse)가 그 주인공. 마르살 레스는 그가 살고 있는 소비 사회를 대표하는 대량생산 물품과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는 팝아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후 네온, 비디오 등을 이용해 현대 도시문명을 표현했고 단순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비판과 풍자를 더해 왔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가 팔라초 그라시의 회고전을 통해 이목을 끄는 것이다. 1958년부터 최근까지의 회화, 조각, 비디오, 그리고 네온 작품 등 300여 점에 이르는 작품들을 한 데 모은 전시는 출품작 중 절반 이상이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작품인 까닭에 더 의미 깊다.

역시 피노 컬렉션으로 운영되는 폰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에서는 12월 31일까지 <Slip of the Tongue>전이 마련된다. 베트남 출신 작가 단 보(Danh Vo)가 기획하고 총 52명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을 망라한 전시는 약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 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시 기획자로 영역을 확장했는데, 폰타 델라 도가나에서 작가를 큐레이터로 초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는 피노 컬렉션의 큐레이터인 캐롤라인 부르주아(Caroline Bourgeois)와 면밀한 협업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진화하고 목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오브제에 대해 다양한 구상을 펼쳤다. 전시 타이틀인 <Slip of the Tongue>는 "실언"이라는 뜻으로, 단 보와 활발하게 교류해 온 예술가 내리 바라미안(Nairy Baghramian)의 작품 제목 중 하나를 빌려온 것이다. 그는 13세기 중세 예술의 대가들부터,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마틴 왕(Martin Wong) 그리고 줄리 얼트(Julie Ault) 등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모아, 광범위한 지평을 전시로 구현했다.





### 마조레 성당에 흩뿌려진, 얼굴

산 지오르지오(San Giorgio) 섬의 마조레 성당에는 스페인 작가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의 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건축과 병치된 독특한 설치로 화제를 낳았다. 하우메 플렌사는 시카고, 시애틀,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돌며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는데, 우리에게도 시카고의 영상 작품 <크라운 분수(Crown Fountain)>(2006)의 작가로 친숙하다. 이번 전시의 기획은 영국 요크셔조각공원의 프로그램 디렉터 클레어 라일리(Clare Lilley)가 맡았다.

그가 선보인 작업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Together>(2014). 성당 천장에 매달린 손과 내부 중앙에 설치된 얼굴, 이 두 조각이 마주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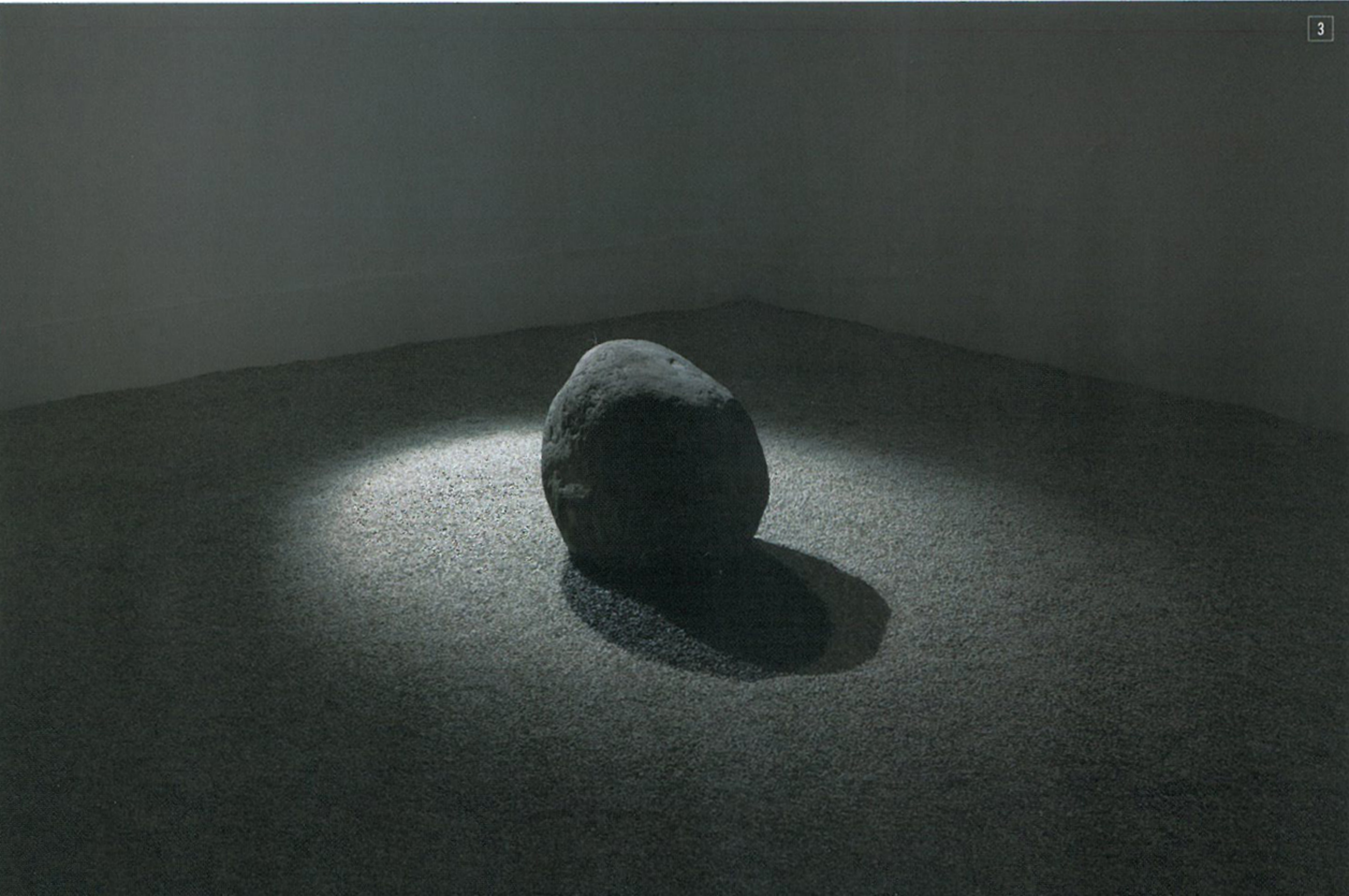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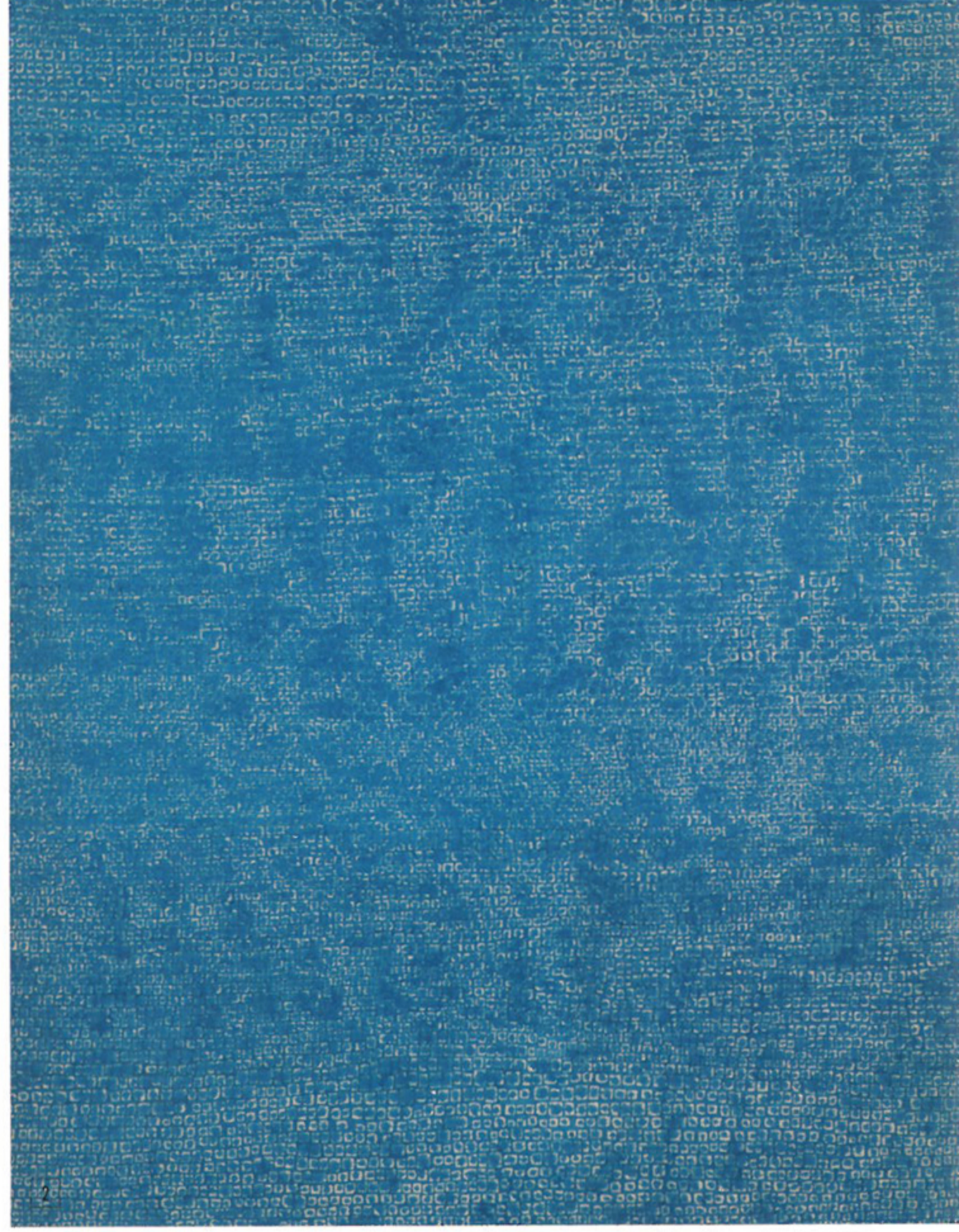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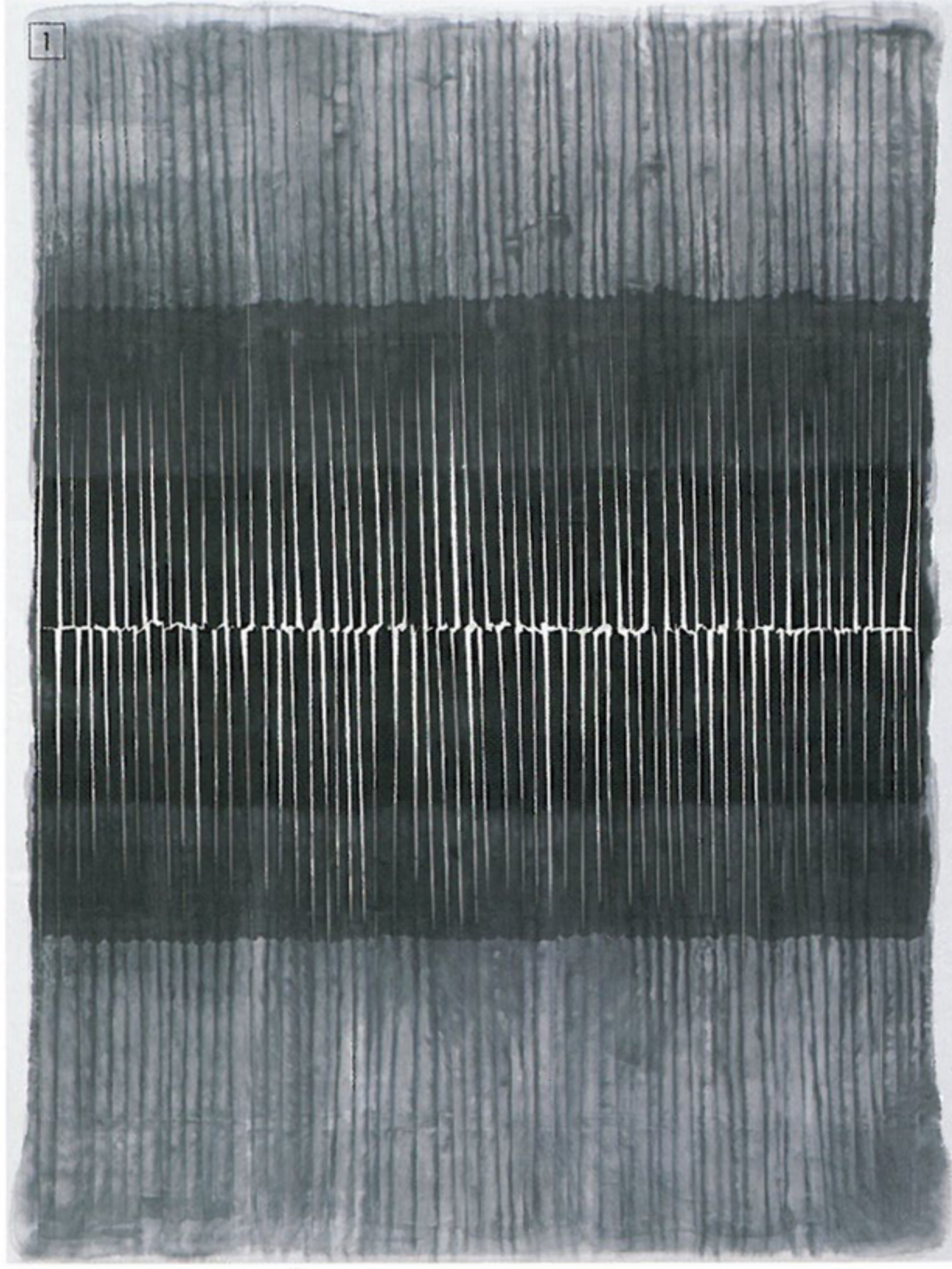
빛에 따라 그 이미지가 변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색적인 분위기에 잠기게 하는데, 이 중 손 형상은 8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얼굴은 스페인에 사는 중국인 친구의 딸이라니,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작가의 삶과 나라 간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의 꾸준한 관심사가 담겨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섬의 끝자락에 위치한 5개의 얼굴 조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설화 석고로 만든 작품은 모두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출발과 도착의 지점인 섬의 위치와 소녀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연관시켰다.

### 활약, 코리안 아티스트

한편 우리나라 작가들의 활약도 곳곳에서 두드러졌다. 팔라초 로레단 델 암바시아스토레(Palazzo Loredan dell' Ambasciatore)에 마련된 <Jump into the Unknown>은 총 22개국 출신의 작가 40여 명이 참여해 베니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작들을 선보였는데, 이 중 한국작가들의 작품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전시를 주최한 나인 드래곤 헤즈(Nine Dragon Heads)는 1995년 한국에서 발흥해 국경과 학제를 넘나들며 전시와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는 유동적 미술 플랫폼으로, 그간 전 세계 각지에서 지역·상황 특정적 작업들로 이뤄진 작업들을 소개해왔다. 그 설립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듯, 구성균, 김동영, 서백이, 서윤희, 송대섭, 신유라, 심재번, 유정혜, 임현락, 최익규 총 10명의 한국작가들이 전시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국 출신의 가브리엘 에드워드 아담스(Gabriel Edward Adams), 캐나다 출신의 에리카 바트도프(Erika Batdorf), 칠레 출신의 엔리케 뮌노즈 가르시아(Enrique Munoz Garcia),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유세프 하드지페조빅(Jusuf Hadzifejzovic), 그루지야 공화국 출신의 일리코 자우타쉬빌리(Iliko Zautashvili), 뉴질랜드 출신의 샬







3

1. 권영우 <무제> 1984 한지에 파슈, 목 224x170cm 사진:김상태 자료제공:국채갤러리 2. 김환기 <17-IV-71 #201(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까' 시리즈)> 1971 면에 유채 254x202cm 환기 재단·환기 미술관 소장 3.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단색화와 이우환 (Dansaekhwa with Lee Ufan)> 2015.5.8-8.15, Palazzo Contarini-Polignac) 설치전경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and studio Lee Ufan 4. 이이남 <Reborn Light> 2014 CRT TV, LCD TV, objects, water 90x90 x340cm



롯 페러렐(Charlotte Parallel), 네덜란드 출신의 카르테어 그룹(Quartair Group) 등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베니스의 지역과 상황을 반영하는 신작을 구성하기 위해 참여 작가들은 전시가 결정된 후, 지난 2년 간 베니스를 각 1회 이상씩 방문했는데, 특히 베니스에서 이뤄진 2번의 공통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곳곳을 방문하고 역사학자, 지질학자 등 지역학자들과 만나 직·간접적 체험을 하면서 전시할 작업을 완성시켰다. 하여 구성된 작업들은 구체적인 리서치에 기반해 있고 전시의 장소와도 깊게 연관되어 색다른 힘을 내뿜고 있었다.

그중 신유라는 작품 <The Net>을 통해 자본주의에 의해 침잠해가는 베니스의 모습을 재현했다. 과거 방문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실로 창대한 문화의 산실로서 역할 하던 베니스는 이제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표준화된 관광코스를 돌며 싸구려 기념품을 구매하고 전형적인 먹거리를 소비한 후 썰물처럼 밀려 나가버리고 마는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전락하고 말았다. 작가는 촘촘한 리서치를 거쳐 이 사실에 주목하고 그 지표로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무라노 섬의 유리공예를 제시한다. 그는 섬에 버려진 유리조각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유리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 후, 이를 잔뜩 매단 그물망을 직접 뒤집어쓰고 베니스의 상징적인 공간들을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을 선보였다. 물이 찰랑이는 선착장,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 산마르코 광장, 할인율을 크게 써 붙인 유리공예품 가게 등을 지나친 그의 종착지는 베니스의 수면 높이에 따라 드러나기도 숨기도 한다는 무라노 섬의 해초바위다. 언제 잠길지 모르는 그곳에 누운 무기력한 모습의 작가는, 실제 대형크루즈선의 베니스 입항이 해수면이 넘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스스로가 자본의 굴레에 속박당한 현대인이자 베니스 자체로 분하고 있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모든 세계의 미래'에 대한 응답이자 경고일지도 모른다.

한편 타고르(Tagore) 국제재단 주축으로 마련된 <Frontiers Reimagined>전에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전광영과 김준이 참여했다. 팔라초 그리마니(Palazzo Grimani Museum)에서 5월 9일 개막된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창작하는 44명의 작가가 초대돼 지적, 미학적 풍요로움을 선보인다. 큐레이터 선다람 타고르(Sundaram Tagore)와 마리우스 퀴트(Marius Kwint)가 공동 기획한 이 전시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문화, 예술의 경계를 살펴 보는 기회. 작가 전광영은 유니크한 작업을 대형 설치로 구현해 보임으로써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는 예술적 탐험을 제시했다. 한편 베니스 역사와 건축에 있어 특유성을 지닌 팔라초 그리마니는 16세기 궁전에서 국립 미술관으로 바뀐 곳으로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레스코화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팔라초 벰보 & 팔라초 모라(Palazzo Bembo & Palazzo Mora)에 마련된 전 세계 유명 작가들과 함께 <개인적인 건축물>전에 참여한다. 지난 2002년 독일의 예술가 르네 라이트마이어(Rene Rietmeyer)에 의해 시작된 국제적인 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간-공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테마를 현대미술과 건축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이 전시에서 그는 'Crossing Borders'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동서양 및 국적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였다. '빛이 되다'를 주제로 '죽음을 넘어 빛'이 되는 TV에 대한 은유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사회적 시스템에서 받게 되는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은 신작을 출품한 것이다.

#### 베니스를 수놓은 단.색.화.

베니스 비엔날레 병렬전시 중 단연 화제를 끈 <단색화>전은 벨기에의 보고시앙 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는 형태로 선보이는 전시.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을 비롯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 등 작고작가까지 그들의 작품세계에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궤적을 남긴 주요

작 70여 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유서 깊은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Palazzo Contarini-Polignac)에서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린다. 이용우 세계비엔날레협회 회장이 기획한 전시는 팔라초 내부에 개관하는 <단색화>전과 <단색화와 이우환> 야외설치 전으로 구성되며 작가 이우환은 자연적으로 형성화된 바위와 돌, 그리고 자갈에 이르는 재료를 이용, 대규모 설치 작업을 비롯해 작가의 사유를 응축한 드로잉들을 내걸었다. 이 두 전시는 비슷한 시점을 전후로 태동한 단색화와 모노하 운동을 재조명하는 당시의 현상과 배경을 환기시키며, 전 세계에서 베니스로 모여든 아트 피플들의 호감을 사로잡고 있다. ■

